

- 주요 뉴스: 미국 행정부, Moody's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 일축. 전문가들은 상반된 전망 제시
 -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내 1회의 금리인하 예상. 경기후퇴 발생은 어려울 전망
 - EU, 미국과의 본격적인 무역협상 착수. 협상문서 교환 등 실무 협의 시작
 - ECB 총재, 유로화 강세는 미국의 정책 오류에 기인. 유럽에 새로운 기회 제공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美中 관세 인하 합의에 따른 무역긴장 완화 등이 영향
 - 주가 상승[+5.3%], 달러화 강세[+0.8%], 금리 상승[+10bp]
 - 추가: 미국 S&P500지수는美中 무역관계 개선 가능성, 기술주 강세 등으로 큰 폭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방산 관련주 매수 증가 등으로 2.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 경기침체 전망 후퇴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8%,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월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3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74% 하락, 한국 CDS 보합

		5/16일	5/9일	전주말대비			5/16일	5/9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5,958.4	5,659.9	+5.27%	국채 금리 10y	미국	4.48%	4.38%	+10bp
	유럽	549.26	537.96	+2.10%		독일	2.59%	2.56%	+3bp
	중국	3,367.5	3,342.0	+0.76%		영국	4.65%	4.57%	+8bp
	일본	37,754	37,503	+0.67%	CDS 5y	한국	31bp	31bp	0bp
	한국	2,626.9	2,577.3	+1.92%		중국	52bp	56bp	-4bp
환율	달러지수	101.09	100.34	+0.75%	위험 지표	EMBI+	380bp	392bp	-12bp
	유로화	1.1163	1.1250	-0.77%		VIX	17.24	21.90	-21.28%
	엔화	145.70	145.37	-0.23%		WTI유	62.49	61.02	+2.41%
	위안화	7.2136	7.2382	+0.34%	원자재	구리	455.6	461.1	-1.20%
	원화	1,389.6	1,400.0	+0.75%		금	3,203.7	3,325.0	-3.6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행정부, Moody's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 일축. 전문가들은 상반된 전망 제시

- 백악관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을 바이든 정부의 탓으로 평가하고, Moody's에 대해서도 신뢰할만한 기관이었다면 지난 4년 재정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번 강등은 '후행 지표(lagging indicator)'에 불과하며, 이미 모든 것이 시장에 반영되었다고 지적
- 시장에서는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2개의 의견이 병존. 일부에서는 기록적 수준의 미국 재정적자는 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S&P와 Fitch 등 여타의 주요 신용평가 기관은 이미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고 지적. 이에 금융시장이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
-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부채 문제가 다시 한 번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져 미국 국채시장 등 주요 금융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다른 주요국들 역시 해당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와 만나 협상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협상을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2~3주 내에 관세율을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부연. 아울러 WalMart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해야 하며,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
-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역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고율 관세를 통보받을 것이라고 언급.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첨언.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은 협상을 위한 전략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설명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내 1회의 금리인하 예상. 경기후퇴 발생은 어려울 전망

- 보스틱 총재는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지만 경기후퇴에 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금년 경제 성장률은 0.5~1.0%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한편 경제 불확실성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할 경우 연내 1회의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피력

■ EU, 미국과의 본격적인 무역협상 착수. 협상문서 교환 등 실무 협의 시작

- FT 등의 보도에 따르면, EU는 일본 등에 비해 더뎠던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본격화. 구체적으로 협상문서를 교환했으며, 관세와 디지털 무역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는 계속해서 EU가 먼저 제안을 내놓지 않으면 4/2일 부과했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압박

■ ECB 총재, 유로화 강세는 미국의 정책 오류에 기인. 유럽에 새로운 기회 제공

-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의 유로화 강세가 직관에 반하는 현상이지만,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오류를 감안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평가. 아울러 유로화 강세는 유럽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부연. 한편, 권도스 부총재는 미국과의 무역마찰 여파가 유로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
-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인 심카스 위원은 금년에 역내 인플레이션이 2%를 달성한다는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금리인하 종료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시장에서는 연내 1~2회의 ECB 추가 금리인하를 전망

■ 중국, 미국·EU·일본·대만의 일부 플라스틱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 상무부는 미국, EU, 일본, 대만의 폴리옥시메틸렌 공중합체(POM copolymers) 수입품에 최대 7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이는 작년 5월에 시작된 조사를 반영한 조치. 다만 시장에서는美中 무역긴장 완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영 매체들은 미국의 對中 관세 유예가 90일 이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일본, 작년 상장기업 순익은 사상 최대. 금년에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작년 상장기업의 순익은 48.5조엔으로 전년도 대비 8.2% 증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해운 등 비제조업 부문 기업의 이익 증가가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견인. 반면 제조업은 자동차 및 철강 부문의 부진으로 2.1% 감소. 금년의 경우 관세 영향으로 상장기업의 60%가 이익 감소를 겪을 것으로 관측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5/19 현지시각 기준)

- 연준 제퍼슨 부의장 및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발언
- 유로존 4월 소비자물가, 중국 4월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투자자는 대규모 부채의 심각성 경계할 필요 - 블룸버그 (Moody's Tells Us What We Already Know About US Debt)

- Moody's가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3대 신용평가사들은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단계에서 한 단계 강등. 이는 장기간의 대규모 재정적자와 이자 비용 증가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주요 원인.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2011년 미국의 첫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도 6조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추가 매입
- 그러나 투자자들은 Moody's가 지적한 당국의 재정적자 및 이자비용에 대한 대응 방안 미비, 베센트 재무장관의 부채와 적자의 지속 불가능 언급 등을 상기할 필요. 아울러 부채 확대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지급 증가 등으로 부채 상환을 강제적으로 요구 받는 '부채 폭탄'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

■ 미국의 온건한 무역정책 선회, 경기침체 회피 가능성이 점차 증가 - Financial Times (A US recession doesn't seem so likely any more)

-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 그러나 최근 對中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무역갈등 완화 의지를 보이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로 낙관론이 부상. 트럼프는 시장의 부정적 반응에 정책을 선회해왔으며, 향후 지지율 하락과 중간선거를 의식해 강경한 관세정책을 고수하지 않을 가능성
- 아울러 최근 고용 증가와 소비 회복, 기업 투자 반등 등이 경제 회복력을 보여주며 이러한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 다만 높은 관세율, 정책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연준의 제한된 대응 여력 등은 리스크로 잠재. 미국이 경기침체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침체 회피가 성공으로 여겨진다는 점은 역설적(irony)

■ 아시아 각국의 통화, 동반 상승 이후 상황에 따라 국가별 상이한 전개 예상 - 블룸버그 (Asian Currencies May Chart Different Paths After Recent Rally)

- 최근 아시아 통화들이 동반 강세. 다만 향후 흐름은 각국의 무역협상, 국내 통화정책 등에 따라 엇갈릴 전망. 중국 위안화 환율의 3개월 및 6개월 전망치는 저평가 해소 기대, 무역협상 재개로 각각 달러당 7.20, 7.10위안으로 상향(Goldman Sachs)
- 한국 원화는 미국과의 통화정책 논의라는 호재로 상승했으나 속도는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향후 글로벌 무역 회복세가 관건이며 1,380원이 심리적 저항선. 한편 말레이시아 링깃화와 태국 바트화의 경우 연말 약세 전환 가능성이 제기

■ **시장의 관세 승리 선언, 잠재적 공급 및 수요 충격 등으로 시기상조 - Financial Times**

(The markets are declaring tariff victory too soon)

- 지난 주美中 무역합의, 베센트 재무장관의 협상 주도권 탈환 기대 등으로 미국 주가가 급등한 것은 무역전쟁 이전의 강세장 복귀를 예상하는 투자자의 믿음이 반영.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금융시장 변동성은 지속될 소지. 첫째, 경제지표에서 향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한 다수의 경고 신호 발생 소지
- 둘째, WalMart의 제품가격 인상 예고가 다른 소매업체로 확산될 가능성. 셋째, 실질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는 연준 통화정책 대응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 넷째, 스태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 등의 위험(TS Lombard). 다섯째, 관세로 인한 공급과 수요 충격 동시 발생 가능성

■ **미국 트럼프의 관세 수입, 소득세 대체를 위한 1조 달러 목표는 비현실적 - The Economist**

(Trump faces a trillion-dollar tariff disappointment)

■ **미국의 주요 금융자산, 불확실성 등으로 우월성 회복은 기대난 - Financial Times**

(Are American assets great again? Not so fast)

■ **미국 하원의 예산안,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며 경제 안정성을 위협 - 블룸버그**

(House's latest budget is a fiscal time bomb)

■ **중국 노동시장, 대량해고 위험은 감소했으나 어려움 지속될 전망 - Reuters**

(Tariff cuts ease mass China layoffs threat, but job market pain persists)

■ **주요 투자자, 약달러미국 재정 불안 등으로 신흥국 투자 비중 확대 - 블룸버그**

(Wall Street Banks Say Emerging Markets' Wasted Years Are 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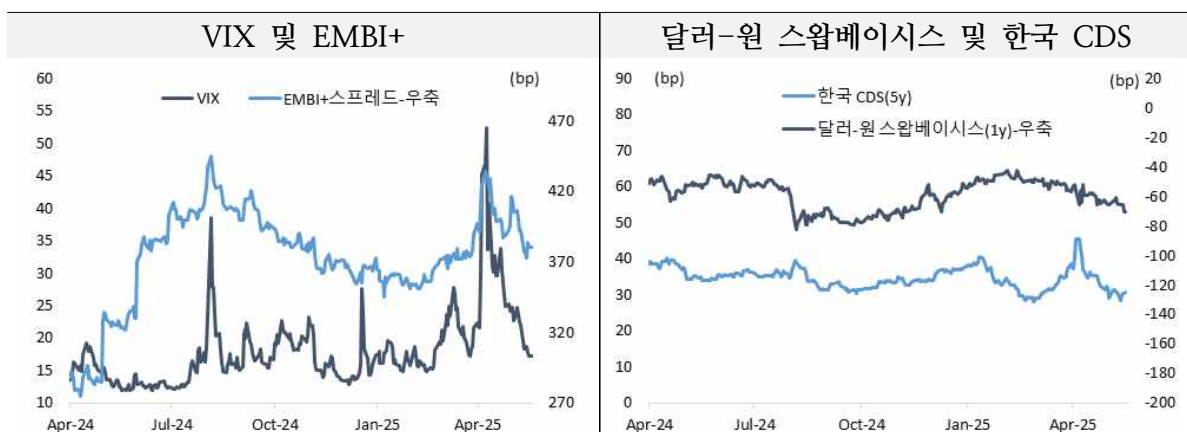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